



전문가 칼럼

'윤리적 인적자원이 만들어가는 기업 윤리문화'



박기찬
인하대 교수, 지속경영학회장

「1 : 29 : 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심각한 사고 한 건 뒤에는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그에 앞서 사고의 조짐을 300건 정도 경험한다는 통계적 논리이다. 안전과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징후를 감지하면서도 '뭐 이 정도를 갖고 그래!'라는 윤리적 둔감성과 안전 불감증에 가로 막히면 언젠가는 회사의 존망을 결정짓는 참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과 윤리의식은 뒤로 한 채 서로가 서로를 잘도 갚아 먹으며 산다고 한다. 자식이 일류 대학에 입학하거나, 친구가 한자리 승진하면 알아서 한 턱 내도록 한다. 다른 나라에는 아예 없는 부담스런 애경사 고지서도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2012년 자료를 보면 직장 은퇴 이후에도 경조사비로 일인당 연평균 116만원을 지출한다.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로 끼리끼리 상생하는 관피아, 범피아, 모피아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큰 밥통 하나씩은 꿰차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란 끼리끼리 나눠 먹고, 서로 눈감아 주는 풍토가 없어야 한다지만 이를 따르면 '의리 없다', '인간미 없다'는 핀잔과 함께 집단 내 외톨이가 되기 십상이다. 조직 안팎의 주요 '소통관리' 역시 돈과 연줄과 배짱 맞추기로 해결하려는 악습이 대를 이어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국민의 눈물과 분노를 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작년 한 해 요란했던 뿐리 깊은 원전비리는 물론 비자금에 발목 잡힌 대기업들의 뒤안길에는 하나같이 윤리와 철학의 빈곤, 열린 소통의 부족, 그리고 경영자의 독단적 리더십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흔히 조직에서 요구하는 비용절감이나 속전속결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리와 날조를 감지하면서도 구성원 스스로 이를 사소한 문제로 간과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태도가 만연되면 조직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マイ클 레빈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하여 현장의 가벼운 징후나 사고를 그때마다 바로 잡아 주면 전체비용은 오히려 절반이하로 줄고 윤리의식은 몇 배나 강해진다고 하였다. 그만큼 직장 내 사소한 비리도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 6시그마 윤리경쟁력을 모든 구성원들의 공유가치이자 핵심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둑도 제 자식은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듯 누구나 윤리의식의 씨앗은 가지고 있다.

손톱 밑 가시, 성급한 업무관행과 의존적 갑을관계, 그리고 뿐리 깊은 네포티즘 (nepotism)이 만들어 낸 "우리가 남이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하도록 책 웰치 전 GE회장의 깨지만 강한 지혜 한마디를 던지고자 한다.

"신문에 나더라도 괜찮다면 그대로 하세요!"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한국 기업 82%, 'CSR 지원 위해 정부역할 중요'

코스리(한국CSR전략연구소)는 지난 2월, 국내 243개 기업을 대상으로 'CSR 현황 및 이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화·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4%에 달했고, CSR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도 64.7%나 됐다. 또한, 정부조달 참여 우대,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업도 45%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업이 CSR 실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CSR 활동 입법화 움직임

최근에 기업의 CSR 활동을 규범화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의 CSR 경영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월 11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인권 경영포럼(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청 주최)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2012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언급하며 중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의식을 개혁하고 CSR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호평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SR 경영효과'를 묻는 질문에 51.2%가 'CSR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관계 강화'(49.6%), '이직률 감소'(32.3%), '고객만족도 향상'(29.9%), '법 준수 향상'(26.8%)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중국 내 외자기업 CSR 평가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내 국내 기업의 'CSR 점수'는 다른 국가의 기업을 압도했다.

윤리경영 스터디

윤리적 리더가 윤리적 기업을 만든다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ILM과 BITC에서 발표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 보고서를 소개하여 기업의 리더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경영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ILM(Institute of Leadership & Management)과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가 수행한 조사에서 기업의 리더와 관리자들은 직장에서 윤리적 이슈에 직면했던 경험을 공유하였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윤리경영의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제시하였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유엔의 향후 미래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사업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온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효가 2015년 완료된다. 이후 15년을 이끌 미래비전으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번 개발 목표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도시,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며,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나아가 기업과 시민사회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이 다음 세대의 개발의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삼은 만큼 향후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국제적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움직임 커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해외사업장과 외주업체, 그리고 공급망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은행투자운영회(NBIM)는 2006년부터 아동인권을 운영핵심에 두고,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에 아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인권을 증진하려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이 아동노동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아동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중국대륙에 부는 CSR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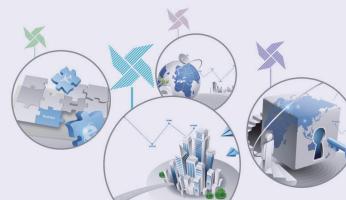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세계적 부자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기부는 다소 생소한 문화였다. 그러나 포브스(Forbes) 차이나가 지난해 중국 자선가 100명이 기부한 총액이 약 7,34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 기업의 CSR 활동은 점차 활발해 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내 물, 공기, 음식 등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기부금은 환경, 의료 개선에 쓰이고 나머지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직급에 따른 기업의 가치관에 대한 다른 시각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가치관과 윤리강령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임원이 66%인데 반해 관리자(고위, 중간, 일선 관리자는) 38%에 그쳤으며, 특히 일선관리자는 기업의 가치관과 윤리강령의 효과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일선관리자들이 업무 현장에서의 기업 가치관과 윤리강령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와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17%로, 임원 10%, 최고경영자 0%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일선관리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업의 윤리강령을 가장 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3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식품업계의 비윤리적 경영 사례와 안전식품을 만들어가는 윤리경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먹는(食)’ 것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해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업체의 비윤리적 행위는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한 이후 식품업체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엄격한 자체 검증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드러나는 식품업체들의 비윤리적 경영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사례 원가절감 위해 폐기 계란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계란 폐기로 가격이 급등하자 원가절감을 위해 폐기 계란으로 식품을 제조한 식품업체가 적발되었다. 빵 반죽 제조업체인 A업체는 파손되거나 곰팡이가 편 계란을 사용해 빵 반죽을 만든 뒤 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빵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소비자들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는 그 식품의 원산지, 성분표시 등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식품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를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구매하는 음식의 안정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부모와 아이,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권할 수 있겠는가.

사례 영양성분표시 무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국내의 대표 캔 햄 5개사 제품 중 3개사는 기본적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 제품의 곁면에는 ‘식품첨가물 7가지 무첨가’, ‘나트륨과 지방을 줄인’ 등의 표시만 되어 있으며, 다른 제품의 곁면에도 ‘짜지 않고 맛 좋은’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정작 소비자가 수치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영양성분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B캔 햄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홈페이지와 제품 곁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제품에는 이를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식품업체들 중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유통기한이 얼마나 않은 재고 제품들을 기부하고 생색을 내는 업체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심에 반하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 하지만 최근 실속 있고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식품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 사회효과가 기대된다.

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식품업계의 지역밀착 사회공헌활동

식품업계의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식품과 노력봉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C기업은 지역의 결식 아동 약 420명에게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아동들이 구청을 통해 지원받는 밀반찬 및 도시락 급식 외에 나머지 끼니도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2면에서 이어집니다.

기업의 윤리강령 vs 개인의 윤리적 기준

의사 결정 시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54%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20%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내는 것’, 19%는 ‘윤리강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관리자들(53%)이 조직의 윤리강령보다 개인의 윤리적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윤리강령이 단순히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강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 기본지침 및 프레임워크로써 작동 할 수 있도록 장려 해야 한다.

▶ 리더를 위한 5가지 조언

1 기업의 가치관과 전략을 연관 시켜라

기업의 가치관을 조직의 전반적 전략과 일맥상통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2 비윤리적 행위를 솔직하게 다루어라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차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해야 한다.

3 모든 단계의 리더들을 성장시켜라

기업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하고 조직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므로 리더들이 조직의 윤리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의 가치관을 구체화시켜 조직 내부에 그 가치를 적용시키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4 이분법적 사고를 주의하라

기업의 가치관은 규칙서가 아닌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틀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직원에게 실제 권장되는 행동과 또 거부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기업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직원 스스로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업 가치관을 실제 업무상황에 적용시켜라

리더들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가치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기업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킨 직원들에 대해 보상하고, 왜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관과 인사고과를 연결시켜야 한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에서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윤리경영 교육은 임직원들이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이 경영상의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체계를 제시한다. 그러나 같은 조직 내에서도 직무영역별로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이 다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경영환경 및 경영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더욱 다양해진다. 따라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상황, 비전, 전략, 윤리규범 등에 따라 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교육의 방법에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현장교육, 직급별·직무별로 시행하는 집합교육과 윤리경영 이슈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진행하는 워크숍 등이 있다. 기업들은 이 밖에도 윤리경영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

인터넷을 통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윤리 이론을 실제 업무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인 딜레마/시나리오의 방법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윤리경영 교육이

많이 이용된다. 이 방법은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고 유익하게 윤리경영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례

인터넷 교육을 통해 임직원에게 전달되는 윤리경영 정신

A기업의 전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연 1회 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윤리준법 사이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월 2회 사내 교육방송으로 윤리준법 만화를 방영하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윤리·준법 자기점검시스템

몇몇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컴퓨터를 켤 때 윤리·준법과 관련한 자기점검 리스트가 자동으로 뜨게 하는 시스템을 윤리경영 교육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번에 전 항목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에는 형식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마다 한 개의 화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또 문제를 읽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윤리경영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기법은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연극이나 드라마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해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 맞는 윤리적 상황을 발굴하여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윤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리경영 교육 드라마에 임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여 직원들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기도 하며,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을 동영상 인터뷰에 등장시켜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이어집니다.



해외 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가 6월 24일 어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50여 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설명회는 해외공정거래법 실무상 가장 이슈가 되는 5개 핵심주제인 기업 결합(국제 M&A),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특허권과 공정거래법, 국제카르텔과 중국 경쟁법 동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경쟁법 규칙이나 사건처리 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위험을 관리할 방법도 소개하는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스위스 바젤 반부패 컨퍼런스

스위스 바젤에서 ICCA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Collective Action) 주최로 6월 26~27일 양일간 '반부패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연합행동(Collective Action)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부패 연합행동에 관한 전략, 실행기법 및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행사에는 세계은행, 유엔 글로벌콤팩트, 등의 국제기관 및 구글, BP,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 정부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를 비롯하여 독일 지멘스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 세계 31개 글로벌 프로젝트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독일 지멘스 본사 준법감시인 안드레아 호프만은 "부패 척결을 위한 단체행동을 위해서는 반부패를 강조하는 기업문화와 공공부문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지멘스의 사례가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가진 새로운 변화의 사례로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Q&A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Q** 기업이 공익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기업에서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컨설팅 요청, 법률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사항을 기업으로
부터 송부 받은 기관들이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7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절차와 주요 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위반 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

- 주 최 : 금융감독원, 관세청
- 일 시 : 2014년 7월 3일(목)
- 장 소 : 대구은행 본점 강당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 in 평창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산업별로 취해야 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걸맞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 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 일 시 : 2014년 7월 23일(수)~26일(토)
- 장 소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Q '선물'과 '뇌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 뇌물 관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A 최근에는 돈 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권, 숙박권, 회원권 등 모든 상품권이 뇌물의 종류로 인식될 만큼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뇌물'은 물건의 종류와 상관 없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 혹은 암묵적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물과 구별 됩니다. 무심코 받았던 선물로 인해 추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면, 그 선물은 언제든 '뇌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에서는, 선물반송센터 또는 반송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의 표시 수준의 명절·승진 선물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관례화하는 등 각 사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기업을 위해서는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하고, 관련 내부지침을 만드는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윤리를 실천하려는 임직원의 의지와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Conference 2014

전문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녹색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지속가능경영의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주 최 : Tomorrow People Organization
- 일 시 : 2014년 7월 5일(토)~7일(월)
- 장 소 : Bangkok, Thailand

ELEVATE Leadership Series Seminar

'좋은 의도나 윤리적 정책도 실천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주제로 전문가의 연설이 진행되며 기업의 공급사슬과 사회적 책임의 관련성을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 주 최 : Tomorrow People Organization
- 일 시 : 2014년 7월 5일(토)~7일(월)
- 장 소 : Bangkok, Thailand

윤리경영 퀴즈**Q**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기업과 시민사회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이 향후 15년을 이끌 미래비전으로 채택한 목표는 무엇인가?

- 1) 환경개발목표
-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3) 윤리경영발전목표
- 4) 세천년개발목표(MDGs)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4번,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양점남(did91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임양남님, 정현미님, 김은원님, 한지희님, 허현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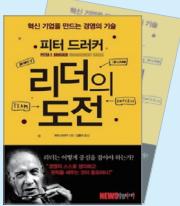
Yes 준법! OK 윤리!

반갑지 않은 초대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나 지나친 여가활동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겠습니다.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새로운 책 소개



피터 드러커 리더의 도전

저자 : 피터 드러커
출판 :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4. 5. 30
정가 : 16,000원



자연을 지키는 비즈니스가 성공한다

저자 : 이승은
출판 : 이담북스
출판일 : 2014. 6. 2
정가 : 12,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